

제4강 - 아킬레우스의 분노

(1교시)

◆ 아킬레우스의 첫 번째 분노

※ 학습목표

『일리아드』의 키워드인 아킬레우스의 분노에 대해 알아보고 첫 번째 분노를 불러일으킨 아가멤논왕과 아킬레우스의 불화에 대해 알아본다.

▲ 각 진영의 수호신

호메로스가 전하는 트로이아 전쟁은 인간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신이 함께 한 전쟁이었다. (순수하게 인간의 역사적 사건이 아님) 각각의 진영에는 그들을 수호하는 신이 있었다.

그리스 연합군	중립	트로이아군
Hera	Zeus	Aphrodite
Athena	Hermes	Ares
Poseidon		Apollon

트로이아군은 아프로디테 여신의 수호를 받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황금사과를 자신에게 건네준 파리스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리스로부터 황금사과를 건네받지 못한 헤라와 아테나여신은 그리스 연합군을 수호하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 여신이 바다의 신 계열이기 때문에 그리스 연합군의 수호신으로 들어간다.

아프로디테 이외에도 아레스가 트로이아의 수호신으로 자리 잡는다. 아레스는 아프로디테와 오래, 깊이 사랑을 나눴기 때문이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중립을 선언한다. 제우스가 한쪽 편을 들었다면 전쟁은 10년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전령신 헤르메스 역시 중립을 지킨다.

태양신 아폴론도 중립을 지키나 특정사건 이후 트로이아군 쪽으로 자리잡게 된다.

▲ 아폴론이 트로이아군으로 돌아선 이유 - 아킬레우스의 두 번째 신탁

아울리스로부터 출정한 그리스연합군은 트로이아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다. 중간 중간 섬에 들러 신선한 음식과 물을 보충해야 했다.

그리스 연합군이 아울리스를 빠져나와 지중해로 항해하는 순간 아킬레우스에게 두 번째 신탁이 내려진다. ‘아폴론의 아들을 죽이면 너 역시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첫 번째 신탁과는 달리 조건절-선택불가)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아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테네도스에 정박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테네스가 막는다. 테네스는 테네도스의 왕이자 아폴론의 아들이다. 테네스는 결국 아킬레우스의 창에 죽임을 당한다.

자신의 아들이 죽자 아폴론은 중립의 입장을 바꿔 트로이아를 수호하게 된다. 후일 아킬

레우스는 아폴론의 은궁을 맞고 죽게 되므로 아폴론은 자신의 아들의 복수를 한 셈이다.

▲ 호메로스 『일리아스』의 주 내용

■ 이야기의 시작

- 9년간 전쟁이 계속되던 중,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던 Agamemnon과 Achilles 사이에 불화가 발생

→ 호메로스의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야기의 처음부터가 아닌, 특정사건부터 시작한다는 것

■ 『일리아스』를 끌어가고 있는 Key word - "분노"

『일리아드』 1권의 1행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 * 여신 - 뮤즈여신. 문학과 예술을 담당.
- * 펠레우스 아들 아킬레우스 - 방대한 대서사지의 주인공 밝힘
- *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 24권을 이끌어가는 키워드 '분노'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아카이아인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주었으며 영웅들의 수많은 군센 혼백들을 하데스에게 보내고 그들 자신은 개들과 온갖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한 그 잔혹한 분노를. 인간들의 왕인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과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처음으로 서로 다투고 갈라선 그날부터 이렇게 제우스의 뜻은 이루어졌도다.

(『일리아드』 7행까지)

- * 아트레우스의 아들 - 아가멤논왕

호메로스가 들려주는 『일리아드』의 키워드는 아킬레우스라는 영웅의 '분노'다. 이 분노는 아킬레우스와 총사령관 아가멤논 사이에서 생긴 불화에서 비롯된다.

▲ 크뤼세스를 노하게 한 아가멤논과 아폴론의 저주

9년(9-고난의 숫자)간의 전쟁이 계속되던 어느 날, 그리스 연합군 진영에 대규모의 전염병이 창궐한다. 그리스 병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는다. 지휘관 회의가 급히 소집되고 예언자 칼카스에 의해 신에 의해 전염병이 주어진 것으로 밝혀진다. 그 이유는 아가멤논이 아폴론의 사제 크뤼세스를 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아가멤논은 아

폴론의 신관 크뤼세스의 딸 크뤼세이스를 전리품으로 삼았다. 크뤼세이스는 딸을 돌려받기 위해 수레에 어마어마한 몸값을 싣고 한손에는 자신이 아폴론 사제임을 상징하는 홀을 들고 아가멤논의 막사로 찾아간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돌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아가멤논은 간청하는 크뤼세스를 장검을 들고 협박해 몸값만 챙긴 후 쫓아 보낸다. 크뤼세스는 아폴론에게 그의 신전을 돌보고 뜻을 받드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으니 자신을 대신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한다.

아폴론은 트로이아군을 수호하기로 결심했던 신이다. 그리고 자신의 신전을 충실히 돌봐온 신관 크뤼세스의 부탁이니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아폴론은 그리스 진영으로 저주의 화살을 쏘아 그리스 연합군 진영에 전염병을 퍼트린다.

▲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의 불화, 아킬레우스 최초의 분노

아폴론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게 하기 위해 크뤼세이스를 크뤼세스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어떤 영웅도 그것을 총사령관 아가멤논에게 직언하지 못한다. 그 때 아킬레우스가 일어나 크뤼세이스와 몸값을 돌려주라고 하자 다른 영웅들도 동조한다.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아가멤논은 크뤼세이스를 돌려주는 대신에 아킬레우스의 여인 브리세이스를 데려가겠다고 한다. 그래서 아가멤논은 크뤼세이스와 몸값을 크뤼세스에게 돌려주고 브리세이스를 데려간다.



* 실제로 그림처럼 아가멤논이 손을 잡고 데려가진 않는다. 아가멤논의 전령들이 와서 아킬레우스로부터 브리세이스를 데리고 막사를 빠져나간다.

브리세이스를 빼앗긴 아킬레우스는 크게 분노하며 더 이상 이 전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이것이 최초의 분노다.

▲ 명예를 손상당한 아킬레우스

브리세이스를 데려갔다는 것은 아킬레우스의 입장에서 전리품을 뺏긴 것이다. 전쟁에서 전리품은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대가이자 보상이다. 이것은 전공을 인정받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전리품을 회수한다고 하는 것은 대가와 보상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시에 전공을 부정하겠다는 것이다. 전리품은 받는 자에게 명예다. 모든 사람이

전리품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가장 많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전리품을 주는 것이다. 아킬레우스는 명예를 위해 스스로 트로이아에 왔다. 그리고 브리세이스라고 하는 여인을 명예의 대가로 취했다. 그러나 직언 한마디에 아킬레우스는 부당하게 브리세이스를 빼앗겼다. 단순히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명예를 손상당한 것이다. 이렇게 명예손상에서 초래된 분노가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의 불화의 원인이었다.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전쟁 불참의 의지로 나타난다. 9년간의 전쟁에서 아킬레우스는 눈부신 공을 세운다. 트로이아 군사들은 아킬레우스의 투구와 갑옷만 보여도 무기를 버리고 도망갈 정도였다. 그러나 아가멤논의 불화 이후 아킬레우스는 전장에 나서지 않는다.

제4강 - 아킬레우스의 분노

(2교시)

◆ 파트로클로스의 죽음과 아킬레우스의 두 번째 분노

※ 학습목표

아킬레우스에게 첫 번째 분노보다 더 큰 분노를 일으킨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에 대해 알아본다.

▲ 투구를 벗어던진 아킬레우스

아킬레우스가 자신의 막사 안에서 무장을 벗고 꿈쩍 안 하자 전세는 하루아침에 역전된다. 그 무섭던 아킬레우스의 투구가 보이지 않자 트로이아군은 용기백배해 트로이아 성문을 열고 나와 그리스연합군의 진영 깊이 침투 공격해 그리스연합군의 선박의 삼분의 일이 불탄다. 자신의 막사 옆으로 트로이아군의 마차가 지나가는데도 아킬레우스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명예를 손상당한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에게 전령을 보내 그때까지 손대지 않았던 브리세이스와 몸값을 돌려주겠다고 한다. 호메로스는 인물이나 신에 대한 수식(은족의 테티스,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 사람잡는 아킬레우스) 붙이 예쁜 브리세이스 붙이 예쁘다는 호메로스 시대에 미의 기준의 척도의 그래도 아킬레우스는 꿈쩍하지 않는다.

▲ 헤라와 아테나의 참전과 제우스의 경고

전세가 트로이아군으로 기운 것은 헤라 여신과 아테나 여신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수호하는 진영이 전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황금 사과를 받지 못한 그들이 이 전쟁마저도 패배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헤라여신과 아테나여신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해 아킬레우스가 없는 전장에 뛰어든다.



Hera와 Athena에게 Zeus의 명령을 전하는 Iris

여신 중 유일하게 전쟁용 투구와 창으로 무장한 여신 아테나
공장새를 신조로 하는 여신 - 헤라

이렇게 두 여신이 참전해 그리스 연합군을 지키게 되자 전세는 다시 백중세가 된다.
그런데 제우스가 지켜보니 이것은 신들의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제우스에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제우스는 무지개의 여신, 심부름을 담당하는 이리스를 시켜
이 순간부터 그 어떤 신도 인간의 전쟁에 관여해선 안된다는 명령을 전하게 한다.
그래서 두 여신은 전쟁에서 물러나고 트로이아는 전쟁의 절대 우위를 점한다.

참고)

헤르메스 - 전령신. 제우스의 심중을 헤아려 그 뜻을 전파하고 달변으로 상대를 설득하기도
함.

이리스 - 심부름의 신으로 들은 그대로 전함.

▲ 아킬레우스로 변장하고 전쟁에 나선 파트로클로스



Patroclus와 Achilleus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절친한 친구로 나온다.

또다른 전승에 의하면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스의 사촌이라고 한다. 실제로 족보로 따지면
사촌간이다. 또 어떤 전승에 의하면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스의 마부라고 한다.

(그림)마차 아킬레우스가 탔던 마차, 벤허에 나온 마차와 같은 것이다. 아킬레우스는 창을
잡아야 하느 말고삐를 잡는 마부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무엇이 맞는지는 잘 모른다. 그러
나 계보상은 사촌이 맞기 때문에 마부였을 리는 없고 사촌이자 절친한 친구였을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마차를 끌었던 말은 두 마리다. 신들은 4두마차를 찬다

(그림) 헤라여신과 아테나여신도 4두마차를 탄다.

4두마차를 인간중 처음 탄 것은 로마의 황제다. 신들의 영역에 있던 것을 로마시대에 황제
들이 인간의 영역으로 가지고 왔다. 또 한가지 결정적인 것은 제우스의 신조 독수리의 휘장
을 로마황제들이 사용했다.

글라디에이터에도 나오지만 시저가 등장하는 전쟁에는 독수리 휘장이 앞서 나간다. 막시무스가 혼자 출전하는 전쟁에는 막시무스의 휘장이 나온다. 신들의 시대에 최고의 권위를 상징한 것이 로마황제에게로 넘어온 것이다. 독수리 휘장은 아직도 미국 대통령이 휘장으로 쓰고 있다. 제우스의 독수리가 미국 대통령의 휘장으로 된 것이다. 독수리는 절대권력을 상징한다.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를 찾아와 간청한다. 9년의 전쟁을 통해 아킬레우스가 트로이아군에게 준 공포는 대단한 것이었다. 분노에 의해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괜찮으니 투구와 갑옷을 자신에게 빌려달라고 한다. 아킬레우스는 가장 절친한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어 자신의 투구와 갑옷을 준다.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하고 아킬레우스의 말을 타고 전장으로 뛰어든다. 트로이아 군단은 아킬레우스의 투구를 보자마자 성안으로 도망가버렸다. 파트로클로스는 트로이아 성문앞까지 추격한다.

▲ 파트로클로스의 죽음

아킬레우스(파트로클로스)와 대적하기 위해 헥토르가 당당히 성문을 열고 나온다. 헥토르는 트로이아 성주인 트리아모스의 장남이자 트로이아군의 총사령관이다. 헥토르는 그마저 숨으면 그 누구도 트로이아를 구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문을 열고 나왔다. 그렇게 파트로클로스와 헥토르의 전투가 벌어진다. 파트로클로스는 헥토르의 적수가 아니다. 파트로클로스는 헥토르에 패해 죽게 되고 헥토르는 그의 투구를 벗겨낸다. 그제서야 헥토르는 자신이 죽인 사람이 아킬레우스가 아님을 알게 된다. 헥토르는 투구와 갑옷을 벗겨내서 자신이 착용한다. 이런 행위는 그것이 자신의 병사들에게 주었던 공포의 이미지를 없애는 것이다.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주인은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승리의 표시로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자신의 성으로 끌고 들어간다.

▲ 아킬레우스의 분노

전령을 통해 파트로클로스의 소식을 들은 아킬레우스는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칼한 자루만을 들고 함성을 지르며 전장으로 달려가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찾아온다. 명예의 손상 때문에 전쟁 불참선언을 한 것이 깨졌다. 이전의 분노를 누르는 더 커다란 분노가 생긴 것이다. 이 두 번째 분노는 친구의 죽음에서 온 것이다. 명예가 손상돼서 생긴 분노보다 절친한 친구가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 더 큰 분노였던 것이다. 일리아스 전체 24권을 이끌어가는 것은 분노다. 이 분노의 내용은 바뀐다. 처음에는 명예의 손상, 다음에는 자신의 친구의 죽음에 대한 분노다. 내용만 바뀌었을 뿐 분노가 이끌어간다.

참고)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의 관계를 동성애로 보는 관점도 있으나 브리세이스에 대한 분노와 이야기가 맞지 않는다.